

유인영 (군산대학교)

朝鮮王朝代의 秤法과 疋法

籌解需用의 371面に 一白斤爲秤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理藪新編 12面の 十五斤曰秤 및 默思集算法의 12面 五十斤爲秤과는 다르고 九章術解(南秉吉編)과 九章算術(中國編)에는 使用한 것을 찾지 못했다. 또한 匹法은 42尺, 40尺, 35尺, 32尺, 26尺 및 24尺의 6가지로 使用 되었던 바 長短의 差異 時空의 差異로 類似하다.

강미광 (동의대학교)

연분수와 무리수에 관한 소고

$$a_0 + \frac{b_1}{a_1 + \frac{b_2}{a_2 + \frac{b_3}{a_3 + \dots}}}$$

와 같이 표현한 수를 연분수라고 하며, 이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짓는 강력한 도구이다. 식물에서 나타나는 잎들의 배열이나 솔방울의 씨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회전각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자 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연은 유리수보다는 무리수 특히, 황금비를 많이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연분수를 이용해 설명하고자하며 유클리드의 GCD 알고리즘과 연분수의 관계, 실수를 표현하는 유리수 근사 수열에서의 연분수의 역할 등을 통해 연분수의 이용가치와 그 영역들을 살펴본다.